

오스틴의 『설득』에 나타난 마음읽기와 책임

허 동 범
(고려대학교)

Huh, Dong Beom. “Mind Reading and Responsibility in Austen’s *Persuasion*.” *Studies in English Language & Literature* 44.1 (2018): 129-151. According to some cognitive literary theorists, Austen was particularly innovative in analyzing how her characters follow the workings of each other’s minds, as Anne in *Persuasion* is capable of considering five levels of meta-knowledge. In advancing this view, this essay examines that this novel’s moral outlook is as much a question of form as of content, and that language—especially its formal dimension of word arrangement and sentence structure of the text—is the bearer of moral content. This paper also suggests *Persuasion*’s meaning is not exhausted by mind-reading involving a primary capacity for reading pre-existing mental states. In addition to individualistic mind-reading, Austen’s text represents interpersonal mind-shaping practice, wherein characters come to form their minds in ordinary interpersonal relationships. (Korea University)

Key Words: mind reading, responsibility, mind shaping, cognitive literary theory, ordinary interpersonal relationships

I. 들어가며

오스틴(Jane Austen)의 작품 속 등장인물들은, 특히 중심인물들의 경우 타인의 마음을 읽는 능력이 대체로 탁월하게 묘사된다. 반드시 탁월하지 않다하더라도 픽션에서는 문제될 게 없어 보인다. 픽션의 실험정신은 우리가 타인의 마음을 읽는 작업을 중단할 수 없다는 사실에, 아울러 종종 우리는 상대의 마음을 제대로 읽는데 실패한다는 사실에 있다(Zunshine b). 정작 픽션 세계뿐만 아니라 일

상의 삶에도 타인의 마음읽기에 관한 능력은 절실히 혹은 불가피하게 요구될 것은 자명하다. 그렇다면 도대체 우리는 어떤 식으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읽을 수 있을까? 한 가지 방법은 통속 심리학적 이론을 적용하여 상대의 마음을 추론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 또 다른 방법으로는 상대방의 입장에 처해보는 것이다.¹

물론, 타인의 마음을 읽는 이론적 사고(즉, 첫 번째 방식)와 상상 혹은 직관(두 번째 방식) 사이에 줄다리기가 일어나는 것은 당연할 것이다. 심리철학자들은 1980년대부터 타인의 행동과 마음을 통속 심리학 이론으로 해석하고 이해할 수 있는지, 아니면 타인의 감정과 사고를 우리의 마음속에 재현해서 이해 할 수 있는지에 대해 논해왔다. 두 가지 방식 모두 필요하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는 듯하다. 타인의 마음 읽기에 대한 우리의 사고의 상당 부분은 이 둘 사이의 혼란스럽고 거의 이해되지 않은 영역 어딘가에서 일어난다고 확신하기 때문이다(Davis & Stone 1995).

타인의 마음을 헤아리는 세 번째 방법으로, ‘직접적인 지각’을 통한 방식을 또 생각해볼 수 있다. 이 입장에 따르면, 우리가 타인의 마음 상태를 헤아리는 것은 추론적 중간 과정을 거치지 않고 직접적인 지각을 통해서이다. 아이가 울면, 우리는 즉각 그 아이가 불편한 상태에 있음을 알아차린다. 개가 갑자기 짖어대기 시작할 때 도망가는 사람을 보게 되면, 그 사람이 무서워서 뛰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린다. 이처럼 직접적인 지각을 통해 상대의 마음 상태를 알아차린다는 것은 앞서 소개한 입장들과는 다른 면을 지닌 듯하다. 심리적 이론을 적용한다던가, 행동에 대한 관찰과 그 후 이어지는 추론의 방식을 통한 방식이 아닌, 직접적으로 지각을 통한 마음 읽기라는 점에서 그렇다.²

¹ 즉, 두 번째 방법은 상상의 작용을 통해서 상대방이 처한 입장에 들어가 그 경험을 시뮬레이션으로 체험 해보는 것이다. 특히 이 방법과 관련하여 녹스-쇼(Knox-Shaw)는 오스틴의 지적인 배경을 18세기 후반의 영국과 스코틀랜드의 계몽주의적 회의주의 전통, 특히 아담 스미스(Adam Smith)의 상상의 이론에서 찾는다(146).

² ‘직접적인 지각’을 통해서 상대의 마음을, 더 일반적으로는 상대의 감정 상태를 읽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이론가들(Gallagher; Hutto; Ratcliffe; Zahavi)의 논지에 전적으로 동의할 필요는 없지만, 최소한 성향적(dispositional) 감정까지는 아닐지라도 순간적으로 발현되는 일시적(occurrent) 감정 혹은 기분(mood)에 관해서는 어느 정도 직접적인 지각을 통해서 사람의 마음 상태를 읽을 수 있다는 것 또한 통설이다. 대부분의 사람의 경우, 얼굴 표정으로 나타나는 감정은 어느 정도는 읽을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보아진다.

최근에 급부상한 문학연구의 한 방법인 ‘인지과학적 문학 연구’(cognitive approaches to literature)의 주된 관심사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상술한 ‘마음 읽기’, 특히 세 번째 방식의 내용과 긴밀히 관련되어 있는 듯하다. 아래에서는 오스틴 작품을 일부라도 인용한 몇 명의 인지과학적 문학 연구자들의 접근 사례를 소개하고, 추후 필자의 본 논문 접근 방법과 주제를 제시하려한다.

‘사회적 마음’(social minds)이라는 큰 틀을 사용하여 소설 작품분석을 시도하고 있는 팔머(Palmer)의 견해에 따르면, 본인이 수행하는 인지과학적 문학 연구가 기본적으로 가능한 데에는 인간의 사고가 “가시적”(visible, 4)이기 때문이라고 단서를 달고 있다. 물론, 팔머는 ‘픽션’ 속의 ‘사회적 마음’을 의미하고 있다. 그는 최소한 19세기 영국 소설에서 사회적 마음에 관한 논쟁이 다음 두 차원에서 발생했다고 보고 있다. 그 한 가지는 ‘어느 정도까지 타인의 마음 작용을 알 수 있는가’와 같은 ‘인식적 차원’이며, 다른 한 가지는 ‘어떤 목적으로 타인의 마음을 알려고 하는가’와 같은 ‘윤리적 차원’이다. 바로 이 두 차원에서 ‘사회적 마음’ 헤아리기라는 논쟁이 소설 속에서 일어났다는 것이다. 팔머는 문학연구자에게 그 기원을 따지는 것은 무의미할 수도 있다는 단서를 달면서도, 오스틴의 『에마』(*Emma*, 1816)의 박스힐(Box Hill) 소풍 장면에서 그 논쟁이 시작되었다고 조심스럽게 제안한다.³

또 다른 인지과학 문학 연구자인 준샤인(Zunshine a)에 따르면, 인지과학과 문학 연구를 결합해서 나타나는 성과 중 하나로 오스틴의 『설득』(*Persuasion*, 1818)의 한 장면을 분석한 뷰트(Butte)의 연구 사례를 든다. 뷰트 본인은 특별히 “심층적 상호주체성”(deep intersubjectivity, 4)이라는 개념을 사용하여 오스틴 작품 한 대목에 대한 통찰을 보여준바 있다. 그것은, 본론에서 자세히 논할 예정이지만, ‘다섯 겹의 마음을 동시에 제시하는’ 오스틴의 정교한 기법이다 (Zunshine 293-5). 소설, 드라마, 극시와 같은 서사 장르에서는 대개의 경우 등장인물들의 마음이 세 겹은 포개진다(embedded)고 언급하는 뷰트나 준샤인이

³ 소풍지에서의 사람들 각자 행동을 지루하게 바라보는 에마는 호기심이 발동하여 사람들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묘책을 궁리하며 마침내 처칠(Churchill)로 하여금 하객들에게 다음과 같이 제안하게 한다. “신사숙녀 여러분. . .우드하우스 양이 말하시길 여러분 각자. . .제치 있는 이야기를 한 가지 하시든지, 아니면 적당히 제치 있는 이야기를 두 가지 하시든지, 혹은 정말이지 아주 지루한 이야기를 세 가지 하실 것을 명하시며 거기에 정말 열심히 웃어주셨노라고 하십니다”(402).

보기에, 그렇다면 오스틴은 등장인물들이 서로의 마음을 헤아리는 그 과정을 분석하는 데 있어서 가히 혁신적인 작가였던 셈이다.

이 논문에서는 오스틴 작품이 위에서 논한 인지과학 문학 연구의 적절한 대상이 되고 있음을 염두에 두면서, 그녀가 재현한 ‘일상성’이 특히 서사 기법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주장을 할 것이다. 즉, 인지과학 문학 연구자들이 각기 사용하고 있는 ‘사회적 마음’과 ‘심층적 상호주체성’ 같은 마음 읽기와 관련된 용어들이 정작 오스틴 작품 분석에서 적절하게 사용될 수 있었던 데에는 오스틴의 작품 ‘스타일’과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는 어떤 요소가 있다는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오스틴 작품에는 정치적으로나 역사적으로 큰 사건은 등장하지 않는다. 하지만 오스틴이 스스로 자신의 글쓰기 작업에 대해 “2인치의 작은 상자 조각”(Letters, 323)을 다듬는 일로 소박하게 표현한바 있듯 그 ‘일상성’은 중상류층의 시골 생활을 중심으로 사람들 간의 대화, 산책, 무도회, 연애, 결혼 등이 주종을 이루는 삶을 주로 묘사하고 있다.⁴

본고에서는 오스틴 작품의 일상성에 관한 그 성찰을 내용과 주제적 함축만으로 한정하지 않는다. 즉 그 성찰이 심미적인 선택에 빚지기도 하다는 점을 다음 장에서 다루고자 한다. 오스틴의 언어 구사와 서사기법이 ‘섬세한 아이러니 서사’를 만들기 위해서라는 점은 익히 알려져 있지만 다음 장에서는 언어, 특히 형식적인 단어 배열과 문장구조와 같은 그 언어 구조가 어떻게 허구적 인물과 행동, 그리고 그 세계를 ‘만들어’가는지를 고찰할 것이다.

본 논문의 전체적 기획은 그렇다면 ‘마음 읽기’에서 ‘마음 만들기’로의 이행 과정이 될 것이다.⁵ 앞서 소개한 독자로 하여금 ‘다섯 겹’의 마음 읽기를 유도하는 오스틴의 서사 기법에 관해서는 본론 2장에서 자세히 논할 것이다. 본고의 최종적 입장은 하지만 오스틴의 그러한 기법을 인물의 ‘인식’적 차원, 즉 ‘마음 읽기’ 차원으로 국한해서 볼 문제는 아니라고 덧붙일 것이다. 그에 관련하여, 3장에서

⁴ 그녀의 작품이 일상의 삶 그 자체를 묘사하고 있다는 데에는 당대 젠트리(gentry)의 개념 그 자체가 귀족, 중간층, 상인, 군인 등 다양한 사람들을 포괄하는 세계에 대한 천착의 개념이라는 것으로도 알 수 있다.

⁵ 이 대목에서 자위즈키(Zawidzki)의 다음 언급은 참고 할만하다. “마음 만들기는 정확한 마음 읽기와 행동 예측에 필수적인 선행 조건이다”(Mind shaping may be an indispensable precondition for accurate mind reading and behavioral prediction, 205).

는 오스틴 작품의 ‘일상적 상호 관계’(ordinary interpersonal relationships)를 잘 이해하려는 일환으로 특히 ‘참여적 태도’(the participant attitude)라는 용어를 도입하려한다.⁶ 타인을 ‘도덕적 관계’로 바라본다는 의미에서 (초연한 태도와 대비되는) 이 ‘참여적 태도’에는 특히 ‘감사’, ‘분노’, ‘용서’, ‘사랑’, ‘마음에 상처 주기’ 등이 포함된다. 이 참여적 태도라는 개념을 『설득』의 이해에 효과적으로 적용하다보면, 일상적 상호 관계에서 발생하는 여러 유형의 ‘책임’을 살펴보는 데 매우 유용한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본다. 특히 『설득』의 두 중심인물이 약혼 파기 후 비교적 긴 시간의 이별과 재회의 기회를 어렵게 이어가면서 ‘자신을 되돌아보고 또 서로를 바라보는 태도’라는 관점에서 이 참여적 태도라는 개념을 적절히 적용할 것이다. 다시 말해서 이 글의 전체적 기획은 중심인물 상호간의 ‘마음 읽기’에서 ‘마음 만들기’로의 이행 과정을 고찰하는 것이다.

II. 마음읽기

『설득』에 등장하는 앤(Anne Eliot)은 타인의 마음을 부단히 관찰하는 모습으로 그려진다. 타인에 대한 앤의 관찰 능력은 소설 전반에 걸쳐 탁월한 듯 재현되어 있는데,⁷ 이는 마음 읽기의 ‘여러 방법’을 동시에 구사하는 그녀의 능력 탓으로 보인다. 앞서, 상대의 마음을 읽을 때 적용하는 방법으로 (1) ‘기존에 소유한 지식’을 이용하기, (2) ‘관찰’을 통한 추론과 상상 혹은 직관을 적용하기, (3) ‘직접적인 지각’을 통하기 등을 소개한바 있다. 아래의 짧은 인용문에서 독자는 앤이 상대를 헤아릴 때 어떻게 이러한 방법들이 자연스럽게 병행되는지 엿볼 수 있다.

⁶ 이 용어를 특히 강조했던 학자는 문학도들에게는 익숙하지 않을 수도 있는 스트로슨(Strawson)이라는 철학자이다. 특히 스트로슨은 일상적 상호 교섭에 있어서 우리가 갖는 태도에 대해서 중요한 개념으로 ‘참여적 태도’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⁷ 오스틴의 전체 소설에는 마음을 ‘ 꿰뚫어보다’를 뜻하는 ‘penetration’, ‘foresight’ 같은 단어들도 수 십여 차례 등장한다.

아버지의 성격에 대하여 상당히 **조용한 관찰**을 해왔기도 하고 오히려 몰랐으면 싶을 정도로 **잘 알고** 있어서. . . (필자 강조)

With a great deal of *quiet observation* and a *knowledge*, which she often wished less, of her father's character. . . (*Persuasion*, 62 필자 강조)

아버지 월터 경(Sir Walter)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점과 “조용한 관찰”이 결합해서 앤의 정확한 판단력에 기본적인 자질이 형성되어 있다고 서술자는 언급하고 있다. 서술자의 신빙성 있는 이 말은 소설 중반부에서 재차 언급되는데, 아버지와 언니 엘리자베스(Elizabeth)가 앤의 사촌 엘리엇 씨(Mr. Eliot)에 관해서 과장되게 언급하며 소개할 때이다. 서술자는 앤의 사려 깊은 판단력에 관해, “이야기한 사람이 누구인지 많이, 아주 많이 참작해서 들어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어야 한다”(153)며 독자를 안내한다. 아래에서 살펴볼 지문은 앤이 사촌 엘리엇의 매너에 대하여 지각하는 장면인데, 지각에 의지한 그녀의 “조용한 관찰”은 상대의 표정 내지는 몸짓 언어(body language)를 통해서 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가 함석하면서 대화가 더 나아졌다. 그가 분별력 있는 사람임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십 분이면 충분히 파악할 수 있었다.** 그의 말투, 그의 표현, 그의 화제의 선택, 그가 어느 대목에서 말을 멈춰야 하는지 아는 것 - 이는 모두 분별력과 감식력 있는 사람이 하는 일이었다. (필자 강조)

He sat down with them, and improved their conversation very much. There could be no doubt of his being a sensible man. *Ten minutes were enough to certify this.* His tone, his expressions, his choice of subjects, his knowing where to stop, - it was all the operation of a sensible, discerning mind. (156 필자 강조)

위 인용문에서 엘리엇에 대한 앤의 평가는 얼핏 보면 매우 긍정적으로 보인다. 옛 연인 ‘웬트윅스에 견줄만한’(이 표현은 후술하겠지만, 제시된 지문 앞선 장면에서 그녀의 의식 속에서 짧게 언급된다), “분별력”과 매너가 이상적으로 결

합되어 보여서 앤의 경탄을 자아내는 듯 보인다. 엘리어트에 대한 앤의 ‘마음(성품) 읽기’를 따라가다 보면 독자 역시 엘리어트의 마음을 그런 식으로 읽게 된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점은, 이 지문이 오스틴의 스타일에 익숙한 독자라면 의심이 갈 여지를 은연중에 제시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실상 앤이 엘리어트의 마음을 ‘인지’하는 과정을 압축해서 보여주고 있기에, 독자는 여기서 오스틴의 독특한 스타일을 엿볼 수 있다. ‘첫인상’으로 시작하여 점차 그 인상을 ‘수정’해나가는 인지의 과정이 압축해서 드러나고 있음을 염두에 두고 다시 찬찬히 음미할 필요가 있다. 이 문장에는 명사형의 단어들("His tone, his expression, his choice of subjects, his knowing where to stop")이 점차 단어 숫자를 늘려가면서 나열되어있으며, 여기에 종결부의 과장된 음조("all the operation of a sensible, discerning mind")가 더해져서 매우 극적 아이러니를 자아낸다. 실상 “십 분이면” 엘리어트에 관한 첫 인상이 틀렸음을 알려주기에 충분한 시간이었던 것이다. 요컨대 앤은 엘리어트가 진실한 사람이기에는 ‘지나치게’ 좋은 인상의 소유자임을 곧장 알아차렸던 셈이다. 『설득』의 서사기법은 그렇다면 언어가 유발하는 유연한 효과를 위해 독자의 민감성을 최대한 요구하고 있는 전략이라고 볼 수 있겠다. 그것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을 경우, 우드(Wood)의 표현을 빌리자면 ‘허구의 실제성’에 관한 독자의 허기가 채워지는 것이다.⁸

필자는 여기서 앤의 이러한 인지적 과정을 제대로 파악한 ‘독자’라면, 즉 앤의 생각을 공유한 독자라면, 특별히 가치 있는 방식으로 어떤 ‘반응’을 취하도록 오스틴의 문장이 이끌고 있다고 강조하고자 한다. 그것이 가능한 것은 오스틴의 독특한 소설기법인 자유간접화법(Free Indirect Style) 덕택이다. 이 기법의 한 가지 독특한 역할은 서술자의 존재감과 그 권위(도덕적 태도와 가치를 전달하려는)는 감소되면서, 아울러 등장인물의 관점이 부각된다는데 있다. 자연스럽게 함축되어있는 도덕적 특질을 해독해야만 하는 독자의 임무는 커질 수밖에 없다. 다시 말해서 자유간접화법이라는 소설적 환경 하에서는, 서술자와 인물의

⁸ 우드에 따르면, 허구인물이 지니는 “실제성의 수준은 작가마다 다르며, 허구인물의 특정한 심오함이나 실제성의 수준에 관한 독자의 허기는 각각의 작가에 의해 길들여지고 작품의 내적 관습에 적응한다”(120). 그는 또 이어서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소설이 실패하는 것은 작중인물이 충분히 생생하거나 심오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소설이 자신의 관습에 어떻게 적응할지 독자에게 가르치는 데 실패했을 때, 작중인물과 실제성의 수준에 대한 독자의 특정한 허기를 다루는 데 실패했을 때이다”.

‘이중적 목소리’가 종종 모호하게 제시되기에 독자로서는 해석적 도전이 수반된다는 얘기이다. 하지만 자유간접화법의 장점 또한 그 점에 있다는 생각이 든다. 독자는 누구의 목소리인가를 따지는 해석적 즐거움을 누리면서도 동시에 결국은 앤의 인지 과정에 더 깊숙이 동참하게 된다. 상술한 지문에서는, 탁월한 매너라는 것이 올곧은 성품을 수반한 도덕적 원칙이 없는 상태에서는 가치가 없는 것이라는 사실을 독자로 하여금 은연중에 터득하도록 유도한다. 엘리엇트가 위선자이며 사기꾼이라고 극명하게 판명되는 것은 추후 소설 진행과정에서 전혀 놀랄만한 일이 못된다. 인지적 마음읽기라는 소설 전개상 필요한 인물의 경우에는 소설 앞부분에서 미리 단정적으로 그 정보를 제공해서 작품성에 해를 입힐 필요가 없을 것이다. 얼마든지 다른 방식으로든 소설 후반부에 이르면 밝혀질 장치가 있기 때문이다. 앤의 친구 스미스 부인(Mrs. Smith)이 후에 그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엘리엇 씨는 음흉하고, 가식적이고, 계산적이고, 이기심 말고는 원칙이 없는 사람임이 확실해”(214).

하지만, 독자의 관심을 이끌어가는 이 소설의 초점은 전술했듯 가족, 친지와 같은 주변 인물들의 마음 상태를 알아내는 데에 있다기보다는 실상은 앤의 과거 약혼 상대자였던, 칠 년의 시간이 흐른 뒤 홀연히 재등장한 Wentworth의 ‘마음 상태’를 알아내는 데에 놓여 있다. 오스틴의 서사기법이 작품 내 한 사람의 관점으로 서술하는 경향이 있음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분별과 감성』(*Sense and Sensibility*, 1811)을 예로 들면, 여주인공 엘리너(Elinor)가 그러한 역할을 한다. 『설득』의 독자는 이미 Wentworth를 향한 앤의 애뜻한 감정 상태에 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받고 있기에, 자연 독자의 관심은 앤을 향한 Wentworth의 현재 마음이 어떠한가에, 그리고 여기에 대한 앤의 반응에 점점 더 쫓리도록 유도한다. 과연 그에게 예전의 감정이 남아있는 것일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되살아 날수는 있을까. 앤은 물론이고 독자의 관심이 온통 이 물음에 대해 쫓리도록 소설 구성이 짜여 있다는 얘기이다. 그를 향한 앤의 마음 상태에 대한 묘사는 소설 전반에 걸쳐, 오스틴 소설 중 가장 변화무쌍한 감정 표현으로 가득 차있다(이에 관한 소개와 논평은 후술할 예정이다).

앤은 자신의 가족과 관련된 Wentworth의 마음 상태에 대해선 비교적 정확히 파악한다. (물론 앤 자신에 대한 그의 마음 상태를 파악하는 데에는 수월하지 않다.

그 이유 역시 후속 장면들에서 살필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몇몇 장면이 떠오른다. (1) 앤이 제 삼자의 얼굴과 그의 얼굴 표정을 번갈아 가며 살피는 장면. (2) 한 편으로, 그녀가 과거의 흔적을 느낄만한 마음의 공감을 발견하고 선 환희를 느끼는 장면(“그가 얘기를 할 때, 그녀는 전과 똑같은 목소리를 들었고 똑같은 정신을 감지했다” 88 - 89). (3) 다른 한 편으로, 웬트워스의 친절한 행동을 고마워하면서도 그의 진정한 의도를 오해하는 장면. (4) 그리고 마침내 앤이 웬트워스의 자신에 관한 사랑의 감정을 확인은 하지만, 그의 질투심의 감정에 대해 속고하는 장면 등. 이 여러 장면 중에서 맨 처음 언급한 장면, 즉 앤이 제 삼자의 얼굴과 동시에 파혼 후 칠 년 만에 돌아온 웬트워스의 얼굴 표정을 번갈아 가며 살피는, 사소한 듯 보이지만 의미 있는 장면을 먼저 보도록 하자. 앤은 베쓰(Beth)의 한 가게(Molland's bakery shop)에서 비를 피하기 위해 잠시 머물러 있다. 약간의 거리를 두고, 앤은 언니 엘리자베스와 웬트워스가 예기치 못한 채 서로 마주치는 것을 목격한다.

엘리자베스가 그를 못 알아보는 채 하는 것은 놀라운 일은 아니었지만 슬펐다. **앤은 그가 엘리자베스를 보았다는 것과 엘리자베스 언니가 그를 보았다는 것 그리고 서로 속으로는 완전히 상대방을 알아보았다는 것을 보았다.** 앤은 그가 아는 척 해주길 기대하고 있는 걸 확신했으나, 언니는 냉담한 표정으로 돌아섰고 그런 모습을 보자 앤은 가슴이 아팠다. (필자 강조)

It did not surprise, but it grieved Anne to observe that Elizabeth would not know him. *She saw that he saw Elizabeth, that Elizabeth saw him, that there was complete internal recognition on each side;* she was convinced that he was ready to be acknowledged as an acquaintance, expecting it, and she had the pain of seeing her sister turn away with unalterable coldness”. (186 필자 강조)

강조된 부분에 “다섯 겹”의 마음이 나타나고 있음(Zunshine a 293-5)에 유의하면서 살펴보면, 독자는 앤의 의식을 통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엿볼 수 있다. 언니 엘리자베스와 예전 연인 웬트워스의 시선이 스치듯 교차하는 사이에 그 두 사람은 서로를 보았다는 의식이 있다. 하지만 한 사람은 아는 채하기를 바라고 있

으며, 다른 한 쪽은 그것을 무시한다. 오스틴의 서사가 이 짧은 문장에서 노리는 효과는 일차로 ‘앤’의 편치 않은 의식을 보이는 데에 있을 것이다. 하지만 평자들이 보기에는, ‘독자’로 하여금 그녀의 의식을 통해 ‘인물들’ 상호 간의 감정 상태가 어떤 식으로 교차하고 있는지를 감지하도록 하는 데에 그 효과가 더 큰듯하다. 원문에는 세 인물 각각의 마음 상태가 경제적인 방식으로 다섯 겹을 이루도록 잘 엮여 있건만, 평자들도 지적하듯 막상 이를 풀어서 이해하려고 시도하면 그 묘미가 손상되어버리는 것을 느낄 수 있다. (아래 괄호 안의 영어 표현은 원문의 표현이 아님에 주의. 단지 다섯 겹이라는 표시정도로만 이해할 것.)

웬트워스는 엘리자베스에게 (1) 아는 체하고(*be acknowledged*) (2) 싶어 한다(*want*). 그 마음을 엘리자베스는 (3) 무시한다(*pretend not to recognize*). 앤은 웬트워스 본인이 (4) 무시 받는 사실을 알아챈(*understand*) 것을 (5) 감지한다(*realize*).

이러한 미로와 같은 ‘지각’이 충분히 정교하게 이루어졌는지 확인이라도 하려는 듯, 작가는 다시 한 번 앤이 “확실했다”(convinced)고 부연한다. 상술한 원문을 최초로 분석한 뷰트의 말에 따르면 이렇듯 인간 의식의 겹을 쌓는 소설적 기법은 오스틴이 새로이 시도한 ‘심오한 상호주관성’이 발현되는 “서사 실천의 거대한 변화”인 것이다(4). 뷰트는 메를로-퐁티(Merleau-Ponty)와 같은 현상학 철학자를 염두에 두면서 상호주관성 얘기를 말하고 있지만, 필자는 추가로 오스틴의 위지문이 오히려 근자의 인지과학의 새로운 화두인 ‘마음의 확장’ 얘기와도 충분히 부합된다고 보고 싶다.⁹ 인간의 마음에 관한 기존 인지이론에서의 가정은 마음이란 ‘보이지 않는다’는 입장인데, 현상학자들이 강조하는 점은 마음이 ‘가시적’이라는 주장이다(서론부의 팔머의 언급도 참조). 이는 마음의 표현 문제, 다시 말해서 ‘몸’을 통한 순간적이거나 마음의 가시화 현상이 발생한다는 얘기와 다르지

⁹ ‘뇌’가 곧 마음이라는 통념을 벗어나서 마음은 ‘환경’과의 상호작용에 있다는 논제는 비교적 최근에 불거져 나왔다(Clark & Chalmers 1998). 즉, 정보의 인식과 처리 과정을 환경과 괴리된 채 한 개인의 마음 내부에서 일어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환경, 몸, 뇌가 하나의 통합적 단위를 이루는 바탕 위에서 구현되는 과정으로 설명하고자 하는 것이 그 대략적인 확장된 마음의 논제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오스틴의 소설 기법이 이를 충분히 증거하고 또 재현하고 있다는 생각이다.

않다. 이렇듯 몸을 통한 마음의 현상학적 노출 순간이 드러난 예를 오스틴의 상기 지문에서 살펴보았다.

그러나 픽션의 실험정신은 우리가 타인의 마음을 읽는 작업을 중단할 수 없는 사실에도 있겠지만, 아울러 종종 상대의 마음을 제대로 읽는데 실패한다는 사실에도 있다는 준샤인의 언급(서론 참조)은 『설득』이라는 작품을 감상하는데 있어 매우 시사적인 말로 들린다. 이러한 얘기는, 칠 년 만에 등장한 Wentworth의 마음 상태를 읽는데 **엔뿐만 아니라 독자의 온갖 관심이 집중되어있다는 상술한 언급을 계속 염두에 두게 한다.**

앤이 Wentworth의 친절한 행동을 고마워하면서도 그의 진정한 의도를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더욱 감정 동요에 이르게 되는 한 대목과 관련하여, 오스틴 특유의 서사 기법과 관련된 ‘인지과정’의 중요한 면이 다시금 독특하게 발휘된다. 앤이 무릎을 꿇고 앉아 아픈 조카(Charles)의 간호에 정신이 없는 상황에서, 그 두 살배기 동생(Walter)이 자꾸 등에 달라붙어서 떨어지지 않는다. 주변에서도 이모를 귀찮게 하지 말라고 여러 차례 단호하게 말하지만 월터는 좀처럼 앤에게서 떨어지려 하지 않는다.

그러나 다음 순간 **앤은 월터가 등에서 떨어지는 느낌을 받았다.** 누군가가 머리를 심하게 내리 누르던 녀석을 떼어내어, 작지만 힘차게 목을 감았던 그 손을 풀어서 단호하게 데려갔는데, **니중여야 Wentworth 대령이 그랬음을 알아 차렸다.** (필자 강조)

In another moment, however, *she found herself in the state of being released from him*: some one was taking him from her, though he had bent down her head so much, that his little sturdy hands were unfastened from around her neck, and he was resolutely borne away, *before she knew that Captain Wentworth had done it.* (103)

이 장면은 전적으로 서술자의 개입 없이 등장인물 앤의 ‘주관적 관점’으로만 제시되어있다. 그녀의 수동적 행동(“월터가 등에서 떨어지는 느낌을 받았다”)은 조카 찰스를 돌보느라 무릎을 꿇고 있는 상황에서 “누군가가 [월터를] 단호하게 데려간” 정황을 모르기 때문이다. 지문 마지막에서야 독자는 물론이고 앤은 그

장본인이 웬트위스라는 사실을 알아차린다. 중요한 점은 비교적 장문의 한 문장 속에 몇 개의 분절로 제시된 구절들(phrases)이 있다는 점이며, 이는 앤의 ‘인지 과정’의 순간을 짧은 순간이나마 단계적으로 보여주는 효과를 일으킨다. 후속되는 지문 역시, 그녀의 ‘내면 묘사’에 초점이 맞춰진 문장이 뒤따른다. “웬트위스가 그랬음을 알고 나자 앤은 할 말을 잃었다. 감사의 말마저 나오질 않았다. 어린 찰스만 내려다보며 극히 혼란한 감정 상태로 빠졌다”(103). 다른 한편, 서사 형식은 이제 ‘자유간접화법’으로 전환되며, ‘서술자의 목소리’가 개입한다. “그녀를 편안하게 해주려고 나선 그의 친절 - 태도 - 아무런 말도 없음 - 이런 세세한 일들이 발생한 상황”(103). 그리고 서술자의 재차 개입이 일어난다. “그런 변화 무쌍한 혼란, 그러나 매우 고통스러운 마음의 동요, 여기에서 앤은 벗어날 수 없었다”(103).

이 대목과 관련한 독자의 해석에서 중요한 점은, 앤의 짧으나마 이런 식의 ‘인지 과정’이 다름 아닌 웬트위스의 작은 친절한 행위에서 비롯하고 있음을 파악하는 것이다. 칠년 전 (가족과 다름없는 분의 충고로 인해서) 혼담을 파기한 앤 자신의 행위는 그녀로 하여금 유감 또는 회한의 감정을 쉬 가지지 않게 하지만, 앤 으로서는 그에 못지않게 현재의 웬트위스의 감정 상태를 헤아릴 수가 없기에 더 더욱 감정의 격렬함에 휘말리는 것이다. 일차로 앤의 ‘주관적 관점’이 그러한 인지 과정을 보여주는데 매우 효과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셈이다. 다시 말해서 작가는 소설의 초점을 등장인물의 관점에 제한시킴으로써 독자로 하여금 앤 내면의 지각 내지는 인지 과정에 몰입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는 것이다. 더욱 특기할만한 작가의 서사 기법은, 여기에 더불어 자유간접화법의 은밀한 서술자의 ‘또 다른 목소리’가 인물의 목소리를 모방하면서 개입한다는 점이다. 이는 앤의 후속되는 감정과 사고를 더욱 강렬하게 재현하는 효과를 갖는다.

이어지는 ‘마차 장면’을 살피면서 그러한 감정과 사고의 관련성에 대해 추가로 얘기 해보려한다. 앤은 피곤해 보이는 자신을 마차에 태운 장본인이 정작 웬트위스라는 사실을 눈치 채고서는 다시금 격한 감정에 사로잡힌다.

이것은 과거 감정의 잔재였다. 본인[웬트위스]은 수궁하지 않겠지만 **순수한 우정**에 서 우러난 충동이었다. 그의 온화하고 다정한 마음씨를 보여주는 증거였다. 이런

생각은 기쁨과 고통의 감정을 동시에 느끼지 않고선 불가능했다. 어느 쪽이 더 강렬한지는 알 수 없었다. (필자 강조)

It was a remainder of former sentiment; it was an impulse of *pure*, though unacknowledged *friendship*. it was a proof of his own warm and amiable heart, which she could not contemplate without emotions *so compounded of pleasure and pain*, that *she knew not which prevailed*. (113 필자 강조)

감정을 논할 때 ‘사고’와 ‘느낌’이라는 것을 구별된 영역으로 보는 경향이 있는데, 실상 이 둘의 관계는 긴밀히 엮여있다는 점을 위 지문은 상기시킨다. 이 점을 염두에 두면서 앤의 감정을 이해하다보면, 앞선 여러 에피소드에서도 보았듯이 ‘느낌’ 자체가 갖는 현상적인 면의 중요성이 위 지문에서도 재삼 강조되어있다. 서술자는 앤의 혼합된 감정에 대해 단순히 ‘기술하고’(describe)있는 듯하지만, 실상 앤은 어떤 가치에 대해 ‘정서적으로 인식’하고 더불어 ‘반응’하고 있다. 주의할 점은 앤은 이제야 비로소 웨스트위스가 무심히 행하는 작은 친절의 행위들을 잘 이해하게 되었다고 확신하며 또 거기에 감격하지만, 정작 앤은 그의 행위를 사려깊은 마음씨의 발로로만 잘못 인지하고 있다. 마음읽기라는 차원에서는 성공적이지 못한 셈이다. 그러나 그것은 앤의 잘못이라기보다는 서사의 전략적 차원에서 불가피하게 필요한 작가의 기법인 셈이다. 웨스트위스의 태도에서 앤은, (1) 한편으로는 남아있는 사랑의 감정으로가 아니라 우정에 가까운 배려로 오해하고 있으며(즉, 마음읽기의 실패), (2) 다른 한편으로는 그의 작은 친절에 그토록 감정의 요동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감정적 반응). 중요하게도, 이 두 가지 면을 여기서 대등한 비중으로 받아드릴 필요는 없다는 것이 바로 그 기법이 노리는 효과의 일부이다. 웨스트위스로서는 잔존하는 사랑의 표현으로 보일 여지를 미리 차단할 요량으로 ‘침묵’ 속에서 행동하고 있으며,¹⁰ 앤의 입장에서는 그 행동의 가치에 대해서 느낌으로 반응하지만 정작 그 가치의 개념을 표현하는데 있어서 혼란스러워하고 있는 양상이다.

¹⁰ 참고로, 오스틴의 등장인물들은 종종 자신의 마음을 타인에게 “숨기”는 경우가 많은데, 중심인물들의 경우 대개 이는 가식적 의미보다는 사회적 ‘예절’과 관련되어 있다. 즉 필요한 정보가 분명하지 않는 경우 인식적 차원에서 시간을 두고 숙고하는 과정이 요구된다(Morgan 131).

앞서 앤의 ‘마음 읽기’의 통찰력과 관련하여 인지과학 문학 이론가들이 언급하는 다섯 겹의 메타-인식, 혹은 “심층적 상호주체성”에 관한 얘기를 한 적이 있다. 독자가 인물 상호간의 마음을 다섯 겹으로 포개서 인식하도록 유도하는 오스틴의 스타일은 당대로서는 가히 혁신적이었다는 얘기였다. 하지만 본 논문은 오스틴의 그러한 기법을 인물의 ‘인식’적 차원으로만 국한해서 볼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자 한다. 즉 그러한 기법은 인물의 ‘마음 읽기’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보다 구체적인 ‘행동’을 나타내기 위해서도 사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웬트워스의 작은 친절한 행위가 실상은 앤의 마음을 읽는 수준을 넘어서 그녀가 어떻게 행동할지를 예측한 친절이라는 점에 유념할 필요가 있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 웬트워스가 피곤에 지친 앤을 마차에 태우고자 할 때, 그는 자신의 친누나(Mrs. Croft)를 통해서 권하였다. 자신이 몸소 친절을 베풀면 분명 앤이 거절하리라 예측을 했던 것이며, 누나를 통해서 친절을 베풀면 앤이 거절하지 못하리라는 세심한 배려를 했던 셈이다.

웬트워스의 작은 친절이 앤으로 하여금 그토록 감정의 요동을 일으켰다면, 과거 그들의 사랑이 어떤 종류의 사랑이었을까 하는 호기심을 이 대목에서 가져볼 수 있다. 필자는 여기서 『분별과 감성』의 여주인공 엘리너의 사랑에 관한 가치관을 엿보으로써 그 갈증을 어느 정도나마 해소해 볼 요량이다.¹¹

그[에드워드]의 **분별력과 선함**에 대해서는. . .자주 만나서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나눴던 사람이 아니고서는 아무도 의심하지 않을 거야. 이해력과 신조도 탁월한데 너무 수줍어서 침묵하고 있을 때가 많아서 잘 드러나질 않아. . . **그를 좀 더 알게 되면 모든 점에서 능력이 나아 보여, 매너러면가 인물도. 처음 볼 때는 행동거지가 그리 빼어난 것도 아니고, 인물도 잘생긴 것은 아니야. 그런데 자세이 보면 눈매가 남달리 선하고 얼굴 생김새도**

¹¹ 주요 인물일지라도 오스틴은 의도적으로 그녀)에 관한 심리적 정보를 쉽사리 제공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즉 인물 내면 의식 속으로 들어가는 경우를 전략적으로 한 사람에게 집중하는 서사 전략을 구사한다는 얘기이다. 이와 전혀 관련이 없지만은 않은 얘기로, 라일(Ryle)은 오스틴이 여러 인물들에 대한 “와인 시음가”(wine taster)의 기법을 사용한다고 말한다. 이른바 어떤 인물의 특정한 특징(a particular quality of character)을 탐사할 때 그 인물 내에서만 그 특징을 전개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동일한 특징을 다른 인물들과의 정도 차이의 비교를 통해서 전개한다”는 것이다(278). 예를 들어, 『오만과 편견』에서는 주인공 엘리자베스(Elizabeth)와 다시(Darcy)의 올바른 “pride”로의 움직임 전개를 전개하는 과정에서 거의 모든 인물들의 ‘오만’, ‘편견’, ‘자긍심’을 선보인다.

전반적으로는 부드럽다. 이제는 그를 잘 알게 되어 정말 미남이라고 생각해. 아니 최소한 거의 그렇다는 얘기지. (필자 강조)

Of his *sense and his goodness*. . .no one can, I think, be in doubt, who has seen him often enough to engage him in unreserved conversation. The excellence of his understanding and his principles can be concealed only by that shyness which too often keeps him silent. . . . *His abilities in every respect improve as much upon acquaintance as his manners and person. At first sight, his address is certainly not striking;* and his person can hardly be called handsome, *till the expression of his eyes, which are uncommonly good, and the general sweetness of his countenance, is perceived.* At present, I know him so well, that I think him really handsome; or, at least, almost so. (20 필자 강조)

엘리너가 (동생에게) 에드워드를 사랑하게 된 이유에 관해서 두 가지 특징에 대해 얘기하고 있음에 주의가 간다. 에드워드의 “분별력”(sense)과 “매너”(manners)와 관련된 언급에서 보이는 ‘성품’ 상의 자질이 그 하나이다. 이 자질은 흥미롭게도 (전술했다시피 앤이 엘리엇와 대면하는 사이, 의식 속에서 넌지시 드러내는) 웬트워스의 성품상의 자질과 겹친다. 엘리너는 또한 에드워드의 눈(the expression of his eyes)에서 못 견디게 경탄을 자아낼 때가 있다고 생각하는 듯하다. 감정은 이처럼 특정한 개인을 사랑하게 됨에 따라, 다른 이들에게서 느끼는 감정과는 차별화된 가치를 부여한다(Velleman 1999). 앤이 웬트워스의 작은 친절에 그토록 감정의 동요를 느끼는 것과 관련하여 독자가 유추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런 점이지 않을까 싶다. 사랑의 감정은 이처럼 특정한 사람이나 대상에 대해서 우리의 관심(attention)을 견고하게 함으로써 사적인 가치를 찾아내는 방식을 제공하는 것임을 엿볼 수 있다.

엘리너가 에드워드를 향한 사랑의 특징으로 간주하는 다른 한 가지 특징과 관련하여서는 본 논문 다음 장의 전개와 밀접히 관련이 있다. 엘리너는 상대의 이러한 사적인 매력이 단번에 다가온 것은 아니라고 말하면서, 그것은 ‘교제’를 통해서 서서히 나타났다는 점을 특히 강조한다.¹² 필자가 서론부에서 ‘일상적 상호관계’와 관련하여 “참여적 태도”(the participant attitude)라고 언급한 개념을 상

기해보자. 스트로슨은 단순해보이면서 매우 심오한 통찰을 보여주는 다음과 같은 주장을 한 바 있다. 우리의 도덕적 ‘책임’의 핵심에 자리하고 있는 것은 “일상적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상호 간의 태도에 대한 자연스러운 참여(commitment)”(83)에 있다. 다시 말해서, 일상적 상호간의 관계를 가능하게하고 심지어 구성하는 우리의 ‘태도’나 ‘감정’ 구조야말로 우리의 공통된 인간성의 적절한 양상이라는 것이다. (서두에서도 밝혔듯, 그러한 참여적 태도에는 특히 ‘감사’, ‘분노’, ‘용서’, ‘사랑’, ‘마음에 상처주기’ 등이 포함된다.) 스트로슨의 관점에서 보면 그렇다면 사랑은 무엇보다 ‘참여적 태도’라는 애기인 셈이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생각을 염두에 두고 본고의 나머지 얘기를 이어가고자 한다.

III. 참여적 태도로서의 사랑과 책임

이 장에서는, 과혼 후 재회의 기회를 어렵게 이어가는 두 중심인물이 각기 서로에 (때론 자기 자신에) 대해 지닌 ‘태도’에는 여러 ‘책임’과 관련되어있는 면이 있음을 살펴 볼 것이다. 넓게 보아 인물 상호간의 ‘마음 읽기’에서 ‘마음 만들기’로의 이행 과정을 살피는 것이다.

앤이 타인의 마음을 읽는 관찰력이 뛰어나다는 점은 전술한 바 있지만, 앤은 무엇보다도 웬트워스가 그녀를 대하는 “냉랭한 공손함”(cold politeness, 96)에 대해 가슴 아파한다. 그의 태도에서 그녀를 ‘용서’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아차렸기 때문인 것이다.

그는 앤 엘리엇트를 **용서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녀는 그를 **부당하게 취급했다**. 그를 저버리고 실망시켰다. 더 나쁜 것은 그 과정 중에 **의지가 박약**하다는 사실을 드러냈다는 것이다. 과단성 있고 확신에 찬 웬트워스로서는 그런 면을 견디지 못했다. 그녀는 다른 사람들 말을 들어주기 위해 그를 포기한 것이었다. 그것은 **지나친 설득의 결과**였고 **의지박약과 소심함**을 드러낸 일이었다. (필자 강조)

¹² 에이브럼슨과 레이테(Abramson & Leite 675) 역시 『분별과 감성』의 위 인용 구절을 인용한 바 있다. ‘사랑’에 관한 이론적 논지를 ‘반응적 태도’(서론에서 언급한 바 있는 스트로슨 참조) 내지는 ‘반응적 감정’의 관점에서 인용하고 있다.

He had *not forgiven* Anne Elliot. She had used him ill; deserted and disappointed him; and worse, she had shewn a *feebleness of character* in doing so, which his own decided, confident temper could not endure. She had given him up to oblige others. It had been *the effect of over-persuasion*. It had been *weakness and timidity*. (86 필자 강조)

앤을 향한 앤트워스의 마음이 누그러지기 시작한 것은 라임(Lyme)에서 루이저(Louisa)의 낙상 사고가 있던 때 그 이후 부터이다. “그는 확고한 원칙과 방자한 고집이, 무모한 만용과 침착한 사람의 단호함이 다르다는 사실을 배웠다. 그 날 목격한 것들로 인해 그는 자기가 잃었던 연인이 얼마나 탁월한 사람인지를 새삼 알게 되었고, 다시 마주한 그 여자를 다시 얻고자 애쓰는데 방해가 된 자신의 자존심, 어리석음, 우둔한 분노감을 개탄하기 시작했다”(244). 웬트워스는 여기서 아리스토텔레스적인 덕에 관한 인식을 얻게 된 듯하다. “결단력과 강한 의지력의 성품”(a character of decision and firmness, 110)은 한 편으로 의지박약과 반대되고, 다른 한편으로 완고함과 반대된다는 깨달음이다. 웬트워스는 앤이 의식 속에서 밝힌 바 있는 다음과 같은 교훈을 배운다. “때로는 남의 설득을 받아들일 줄 아는 기질을 갖는다는 것이 단호한 성격만큼이나 우리의 행복에 이롭다”(136). 웬트워스의 도덕적 통찰 혹은 자기인식은 마침내 편지의 고백에서 드러나듯, ‘새로운 감정’의 표현으로 나타난다. 자신이 고통을 받았기 때문에 앤의 장점을 부당하게 평가했고, 일편단심(constancy)의 마음을 지니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저 화가 났던 것뿐인데 무관심하다고 상상했던”(244) 것이다.

칠 년 전 약혼 파기 행위에 대한 ‘앤 자신의 태도’와 이를 비교해볼 필요가 있겠다. 웬트워스로서는 그의 감정 즉, 부당한 약혼 파기에 대한 ‘화’로 인해 도덕적 관점이 흐려지고 동시에 ‘강인한 성격’의 개념에 대해서도 순진한 인식을 지니게 되었다면, 그에 반해 앤은 파혼 결정으로 인해 감내해야만 했던 고통과 불행에도 불구하고 좀 더 차분한 태도로 과거를 바라보았다. 재결합 이후 앤이 자신의 태도를 밝히는 아래 대목은 이 작품의 주제를 매우 잘 보여주는 듯하다.

과거를 생각하며 뭐가 옳고 그른 것이었는지, 그러니까 저의 그 행동에 대해서 긍정하게 판단해보려고 했는데요, **그로 인해 크게 괴로웠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 행동이 옳았**

다고, 당신도 이제 더 좋아하게 될 분의 충고를 따른 것이 전적으로 옳은 행동이었다고 생각해요. 제게 있어 그 분은 어머니나 진배없는 분이예요. 하지만 오해하지는 마세요. **그분의 충고가 옳았다는 것은 아니예요.** 그것이 좋은 충고였는지 아닌지는 아마도 상황만이 말해 줄 수 있는 그런 경우 중의 한 가지가 사례가 아니었나 싶어요. 그리고 저라면 그와 비슷한 상황에서 그런 충고는 하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그 충고를 따른 것은 옳았어요. 제가 그 분의 충고를 따르지 않았더라면 양심의 가책으로 인해 약혼을 파기했을 때보다 더 마음고생을 했을 것 같아요. **지금**은 사람에게 허용되는 감정의 한도 내에서 **자책할 이유가 없어요.** (필자 강조)

I have been thinking over the past, and trying impartially to judge of the right and wrong, I mean with regard to myself; and I must believe *I was right, much as I suffered from it, that I was perfectly right in being guided* by the friend whom you will love better than you do now. To me, she was in the place of a parent. Do not mistake me, however. I am not saying that she did not err in her advice. It was, perhaps, one of those cases in which advice is good or bad only as the event decides; and for myself, I certainly never should, in any circumstance of tolerable similarity, give such advice. But I mean, that *I was right in submitting to her*, and that if I had done otherwise, I should have suffered more in continuing the engagement than I did even in giving it up, because I should have suffered in my conscience. *I have now*, as far as such a sentiment is allowable in human nature, *nothing to reproach myself with.* (248 필자 강조)

지난 칠 년 동안 앤은 자신의 삶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충분한 숙고의 시간을 가졌다. 비록 고통의 시간을 가졌을지라도 그녀는 스스로를 ‘비난’할 이유가 없다고 술회한다. 본고는 위 지문에서, 앤이 생각하는 책임의식이 단순히 ‘회피’의 그것과는 거리가 먼, 오히려 한 가지로 수렴될 수 없는 책임의 성질을 논하고 있다고 보고 싶다. 앞서 오스틴 작품의 ‘일상적 상호 관계’를 잘 이해하려는 일환으로 ‘참여적 태도’라는 용어를 도입한 취지를 상기하자. 타인을 ‘도덕적 관계’로 바라본다는 의미에서, 참여적 태도를 취한다는 것은 타인을 진지한 자율적 개인으로 바라보고, 그녀)에게 무언가를 요구(demand) 혹은 기대(expect)할 수 있고, 상대 역시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Strawson). 찬찬히 음미해보면, 상술

한 지문은 ‘책임의 여러 유형’을 살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¹³

책임의 한 가지 유형으로, 앤은 현재의 시점에서 과거의 자신을 회고하며 묻고 또 응답하길, 과거의 그 결정은 러셀 부인(Lady Russell)의 강압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다고 판단한다. 즉 그 결정의 책임은 앤 자신에게 있었기에 러셀 부인에 대해 화를 낼 필요가 없는 것이다. 두 번째 유형의 책임으로, 앤으로서는 과거 그 당시에는 (현재의 앤 입장이라면 그럴 필요가 없겠다고 말하면서) 부인의 충고를 따랐던 그 결정이 옳은 결정이었다. 다시 말해서 당시로서는 그 결정에 잘못이 없었다고 보기에 현재의 앤으로서는 과거 자신의 결정에 대해 지금 ‘죄책감’이 수반될 필요가 없는 것이다. 마지막 책임의 유형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앤은 약혼 파기 후 지난 세월 동안 행복하지 못했다. 결국 ‘회한’의 감정은 남는다고 술회한다.

과거의 자신을 향한 앤의 태도와 감정에는 “회한”(regret, 57)이 분명 나타난다. 하지만 웬트워스의 감정에서 나타나듯, 타인을 향한 ‘화’(분노)의 감정 혹은 ‘자책’(self-reproach)하는 감정은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이 눈길을 끈다. 요컨대 감정이 정교한 앤으로서는 상황에 적합한 감정을 지닌 태도라 사료된다. 즉, 회한은 되지만 ‘죄책감’을 느끼지는 않았음을 보여준다.

앞서, 웬트워스의 “냉랭한 공손함”에 담긴 태도와 관련하여 그 태도의 동기는 실상 앤의 과거 파혼 결정의 부당함에 대한 ‘화’의 감정에서 나왔다고 언급한 바 있다. 그러기에 그 감정은 앤의 결정에 대해 일종의 ‘책임’을 묻는 표현이요, 아울러 무언의 ‘비난’의 태도와 다르지 않다. 반면 앤의 태도는 과거 결정에 대해 지나친 자책을 빠지지 않으면서도 현재 본인이 처한 상황 즉, 행복하지 못한 상황을 외면하지 않는 적절한 감정을 드러내는 태도이다.¹⁴ 요컨대 독자는 앤에게

¹³ 왓슨(Watson)에 따르면, 가장 기본적인 책임 유형은 “개인의 근본적인 가치평가 지향성”(an individual’s fundamental evaluative orientation, 271)이다. 본고는 여기서 더 나아가 ‘설명 요구’, ‘책임 귀속’, ‘비난’과 같은 여러 유형의 책임을 살펴보고 있다.

¹⁴ 후회가 요구될 상황에서 과도한 죄책감을 느끼는 경우를 우리는 종종 목도한다. 후회 혹은 뉘우침이 때론 (책임감 있는) 행동을 필연적으로 수반하지는 못하더라도 ‘인격을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경우에 대한 학자들의 고민은 “행위자 후회”(agent regret)라는 개념으로 표출되기도 하였다(Williams). 이 용어는 일반적인 ‘후회’(regret)의 감정과 구별하여, 자신의 행위에 대한 인격적인 회한을 얘기할 때 학자들 사이에서 새로이 쓰기 시작한 용어이다. 이 용어의 최초 사용자는 윌리엄스이며, 배론(Baron)과 같은 학자가 추가로 언급하여 학계에서 널리 쓰이게 되었다.

서는 개인적 감정의 성숙도를 읽어낼 수 있다.

감정의 적절성 얘기 이외에도, 우리는 그 두 사람의 이별을 초래하게 한 ‘과오’를 저지른 직접적인 당사자’인 러셀 부인에 대한 웬트워스의 태도와 관련하여서도 소략하나마 언급이 필요하다. 아래에서 다루어질 그 논의의 이름을 적절한 ‘마음 만들기’라고 칭하려 한다. 과거 자신에게 파혼을 설득한 러셀 부인에 대한 앤의 ‘비난’은 찾아볼 수 없었지만, 웬트워스는 아직은 부인을 ‘용서’할 마음의 준비가 되어있지 않다고 솔직히 밝힌다(248). 그 이면에는 부인의 ‘설득’에 대한 앤과 웬트워스 사이에 서로 다른 견해가 반영되어있는 듯하다. 그가 러셀 부인을 쉽게 용서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앤에게 있어, 러셀 부인이 자신에게 했던 파혼 설득은 비록 그 판단에서는 잘못이 있었지만,¹⁵ 그 동기 면에서는 앤의 행복을 진정으로 원하고 배려하는, 이른바 일상적인 인자함에서 비롯된 긍정적 차원의 설득이었던 셈이다. 웬트워스는 또 다른 오해 해명 즉, 추후에 선장이 되어 돌아왔을 때 연락을 시도했다더라면 약혼 성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그러지 못한 자신의 고집스러운 자존심을 풀고 나서야 마침내 자신보다도 러셀 부인을 먼저 용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힌다, ‘화해’의 의미, 혹은 분노의 표현으로는 ‘마음 만들기’가 돋보이는 대목이다.

앞서, 앤처럼 감정이 정교한 사람이라면 개인적 감정의 성숙도의 일환으로 ‘회한’과 ‘자책감’ 같은 유사 감정 간의 구분을 적절하게 해낸다는 생각을 해보았다면, 이제 웬트워스 경우에서, ‘용서’와 ‘화해’의 구분 역시 충분히 시사점이 있다고 여겨진다. 웬트워스로서는 러셀 부인의 과거 ‘행위’에 대해서는 용서하길 주저했다. 하지만 그는 러셀 부인이라는 ‘사람’과 하는 화해에는 기꺼이 응하기로 ‘마음 만들기’를 한듯하다. 러셀 부인의 진정한 반성과 더불어 ‘용서’의 시발점이 형성되었지만, ‘화해’는 또 다른 차원이다. 화해는 적대감 혹은 ‘분노’의 감정을 제한적으로 멀리하면서 미래의 일상적 관계를 함께 한다는 의미를 지니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러셀 부인을 용서하기로 한 웬트워스의 (나중) 결단은 좁은 의미의 용서가 아니라 화해, 즉 ‘마음 만들기’의 훌륭한 전략으로 보인다.

¹⁵ 러셀 부인이 앤에게 파혼을 설득했던 주된 이유는 결혼 상대로서의 웬트워스를 바라보는 기준으로 ‘재산’과 같은 외적인 기준의 고정관념, 내지는 그의 행동에 대한 오관 등에서 비롯했다.

IV. 나가며

본 논문은 인지과학 문학 이론가들의 언급, 즉 오스틴은 등장인물들이 서로의 마음을 헤아리는 과정을 분석하는 데 있어서 가히 혁신적이었다는 언급과 함께 시작하였다. 하지만 본고는 독자로 하여금 ‘다섯 겹’의 마음 읽기를 유도하는 오스틴의 서사 기법이 인지과학 문학 이론가들의 주장대로, 인물들 상호 간의 ‘인식’적 차원으로만 국한해서 볼 문제는 아니라고 보며, ‘마음 읽기’에서 ‘마음 만들기’로의 이행 과정을 추가로 강조하였다. 그 일환으로 『설득』에 나타난 여러 유형의 ‘책임’을 살펴보았다.

특히 전반부에서는, 편치 않은 관계로 재회한 중심 두 인물이 상대의 마음을 읽어 가는 양상을 살펴보면서 동시에 오스틴 특유의 서사 기법을 언급하였다. 인지과학 방식으로 ‘마음읽기’와 같은 주제를 고찰할 때는, 특히 서사 기법에 초점을 둘 때 그 효과가 극대화된다는 점을 염두에 둔 작업이었다. 그러한 성찰은 내용 혹은 주제의 함축만은 아닌, 특히 형식과 심미적 선택에 빚지기도 한다는 염두이기도 하였다. 작품의 도덕적 전망은 요컨대 내용의 문제이면서도 형식의 문제임을, 아울러 문학 작품의 언어 혹은 구조 자체가 이른바 도덕적 내용의 담지자임을 강조하고자 하였다. 언어, 특히 형식적인 단어 배열과 문장구조 등이 허구작품 산문의 중요한 구성적 성질임을 ‘마음 읽기’의 작업으로 살필 수 있었다. 본고는 아울러 언어적 구조는 형식적 효과를 넘어 소설 속의 인물의 태도와 행동을 ‘만들어’ 내기도 한다는 점에서 ‘마음 읽기’의 작업에서 나아가 ‘마음 만들기’의 이행 과정을 ‘책임’이라는 주제로 또한 고찰하였다.

인 용 문 헌

- Abramson, Kate & Leite, Adam. "Love as a Reactive Emotion." *The Philosophical Quarterly* 61.245 (2011): 673-699. Print.
- Austen, Jane. *Emma*. Ed. R. Cronin and D. McMillan. Cambridge: Cambridge UP, 2005 (1816). Print.
- _____. *Persuasion*. Ed. D. W. Harding. Harmondsworth, UK: Penguin, 1965 (1818). Print.

- _____. *Sense and Sensibility. The Novel of Jane Austen*. Vol 1. 3rd. Ed. R. W. Chapman. London: Oxford UP, 1933 (1811). Print.
- _____. *Jane Austen's Letters*. Ed. Deirdre LeFaye. Oxford: Oxford UP, 1995.
- Baron, Marcia. "Remorse and Agent-regret." *Ethical Theory: Character and Virtue*. Notre Dame, IN: University of Notre Dame Press, 1988. 259-81. Print.
- Butte, George. *I Know That You Know That I Know: Narrating Subjects from Moll Flanders to Marnie*. Columbus: The Ohio State University Press, 2004. Print.
- Clark, Andy. & Chalmers, David. "The Extended Mind." *Analysis*, 58.1 (1998): 7-19. Print.
- Davies, Martin, & Stone, Tony. *Folk Psychology: The Theory of Mind Debate*. Oxford: Blackwell, 1995. Print.
- Knox-Shaw, Peter. *Jane Austen and the Enlightenment*.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4. Print.
- Gallagher, Shaun. "Direct Perception in the Intersubjective Context." *Consciousness and Cognition* 17.2 (2008): 535-543. Print.
- Hutto, Daniel. *Rethinking Commonsense Psychology*. Hampshire: Palgrave Macmillan, 2007. Print.
- Morgan, Susan. *In the Meantime*. Chicago: U of Chicago P, 1980. Print.
- Palmer, Alan. *Social Minds in the Novel*. Columbus, Ohio: Ohio State University Press, 2010. Print.
- Ryle, Gilbert. "Jane Austen and the Moralists," *Collected Papers 1, Critical Essays*. Bristol: Thoemmes Press, 1990. 266-91. Print.
- Strawson, Peter. "Freedom and Resentment." Ed. Gary Watson. *Free Will*. Oxford: Oxford UP, 1982. 59-80. Print.
- Velleman, David. "Love as a Moral Emotion." *Ethics* 109 (1999): 338-74. Print.
- Watson, Gary. *Agency and Answerability*. Oxford: Clarendon Press, 2004. Print.
- Williams, Bernard. "Moral Luck." B. Williams, ed. *Moral Luck: Philosophical Papers 1973-80*.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1. 44-45. Print.
- Wood, James. *How Fiction Works*. London: Jonathan Cape, 2008. Print.
- Zahavi, Dan. "Simulation, Projection and Empathy." *Consciousness and Cognition* 17 (2008): 514-22. Print.
- Zawidzki, T. Wieslaw. "The Function of Folk Psychology: Mind Reading or Mind Shaping?" *Philosophical Explorations* 11.3 (2008): 193 - 210. Print.
- Zunshine, Liza. a. *Why We Read Fiction: Theory of Mind and the Novel*. Columbus: The Ohio State University Press, 2006. Print.
- _____. b. "Sociocognitive Complexity." *NOVEL: A Forum on Fiction* 45,1 (2012): 13-18. Print.

허동범

주소: (02453)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회기로21길 8-5 404호

이메일: ireland001@hanmail.net

논문접수일: 2017. 12. 28 / 심사완료일: 2018. 01. 31 / 게재확정일: 2018. 02. 08.